

“찰매생이로 소득 늘고 젊은이 복적…온 동네 웃음꽃 피었습니다”



바다에서
희망 찾는 사람들

“매생이하면 장흥 내저마을을 떠올리게 하고 싶어요. 내저 찰매생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홍보해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상품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흥군 대덕읍 내저마을의 특산물 매생이는 ‘찰매생이’라 불린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장흥 매생이는 지금도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내저마을 찰매생이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김우진(41)씨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간다. 내저마을은 매생이 준비로 10월부터 분주하다. 대나무 밭에 매생이씨를 받는 ‘채종’ 작업으로 매생이 양식을 시작한다.

김씨는 새벽에 물때를 맞춰 어민들과 서너 명씩 짝을 이룬 채 어선을 타고 나가 작업을 한다. 연일 흑한 날씨에 이어지는 가운데 그는 요즘 매생이 종자(포자)를 밭에 불어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땀뿜 어린 옷깃을 파고들지만 매생이 출하시기를 맞추려면 분주한 손놀림은 실 틈이 없다.

장흥 대덕읍 내저마을 김우진 어촌계장

가업 이으려 4년전 서울서 귀어
부드러운 맛 일품…전국적 인기
냉동 보관 직매송 年 1억원 매출
20~30대 어민 늘어 마을 활기

일일이 손이 가는 작업이라 녹록지 않지만 김씨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다. 내저마을의 매생이가 인기를 끌면서 마을에 활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생이는 20여 년 전까지 만해도 김 양식에 방해돼 마을의 골칫덩어리였지만 지금은 효자 노릇을 토틈하고 있다.

마을 어민들은 매생이 양식으로 새로운 수입이 생겼고 김 양식을 하면서 생긴 빛도 갚는 좋은 일도 생겼다. 매생이의 전국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일하러 온 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 들어 매생이 양식에 새로 뛰어들 20~30대 젊은 어민들이 늘고 있다.

내저마을이 고향인 김씨는 4년 전 귀어했다. 대덕읍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김씨는 서울에 가정을 꾸

려 살아왔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결심했다. 대를 이어온 매생이 양식 일을 물려받기 위해서다. 김씨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적부터 바닷일을 하는 것을 만류했었다. 망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김씨는 장흥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생이 양식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흠여머니가 고된 매생이 양식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김씨가 생산하는 매생이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 발 빠른 마케팅으로 김씨는 매년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생이에 대한 김씨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김씨는 급속 냉동 보관한 매생이를 직매송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강화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매생이 채종부터 수확까지 양식 전 과정을 소비자에 공개하고 있지요. 내저마을의 신선한 매생이가 1년 내내 전국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씨는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매생이 요리법도 게시하는 등 고객과 소통에 힘쓰고 있다. 김씨의 추천 메뉴는 소고기를 넣어 끓여낸 ‘매생이국’이다. 매생이는 빠르면 12월부터 길게는 다음해 3월까

지 채취된다. 김씨는 햇매생이를 찾는 고객들에게는 적절한 구입 시기를 알려주면서 제철에 주문하기를 조언하고 있다. 그는 좋은 품질의 매생이를 공급하기 위해 수확기 끝자락의 매생이는 출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매생이 채취부터 가공까지 모든 과정이 김씨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그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

“바쁠 때 가족은 저에게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아내는 물심양면으로 매생이 판매를 돕고 있지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삼남매는 힘든 일상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원동력이 돼주거든요.”

김씨는 지난해부터 어촌계장을 맡아 38가구가 사는 내저 어촌계를 이끌고 있다. 김씨는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귀어 4년차에 어촌계장을 맡을 수 있었다. 올해 임기가 끝나지만 김씨는 마을 일에 꾸준히 참여할 계획이다. 그는 “어촌의 6차 산업화가 내저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찰매생이를 전국적인 인기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공예명장’ 양계승씨 선정



양계승(58·사진) 순천 금산도에 대표가 ‘2017 전남도 공예명장’으로 선정됐다. 전남 공예명장은 전통 공예기술의 계승과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최고 수준의 기능 보유자를 선정하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3명만이 공예명장의 영예를 안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시설 난방비 3억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실에서 전남관내 사회복지시설 459개소에 월동난방비 3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한전KPS ‘재난안전관리 워크숍’



한전KPS(사장 정의현)는 최근 산업부 주관으로 열린 ‘재난안전관리 워크숍’에서 ‘2017년 재난안전관리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한전KPS 제공>

“캄보디아에 주신 광주의 사랑 고맙습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캄풍스푸 주지사 광주시의회 초청 연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위치한 캄풍스푸주(州)의 베이 삼낭(VEI SAMNANG) 주지사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초청 연설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했다.

삼낭 주지사는 지난 1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초청 연설에서 “캄보디아 캄풍스푸주 광주 진료소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의료적, 교육적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캄보디아 시민들을 대표해서, 항상 캄보디아 캄풍스푸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능한 시장님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지원은 저희들이 절대 잊지 못할 인도주의적 차원의 손길”이라며 “이러

한 인도적 지원은 저희 지구촌이 배우고 다시 실현시켜야 하는 긍정적인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는 가난한 캄보디아 시민들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다”면서 “광주 시민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광주진료소를 지원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지난 2014년 광주일보와 아시아 자원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의약 5단체로 구성된 ‘광주 진료소 추진위원회’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최권일기자 cki@

“아이 많이 낳는 세상 함께 만들어갑시다”

목포 경로당 어르신들, 뜨개질 공동 수익금 출산장려금 쾌척

목포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 땀 한 땀 뜨개질 공동작업으로 모은 수익금을 출산장려금으로 쾌척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전남복지재단에 따르면 목포시 산정동 산정라인이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로 구성된 ‘행복한맘’ 공동작업장은 지난 1년여간 모은 수익금의 5분의 1 가량인 32만원을 이날 복지재단 출산장려금으로 기탁했다.

올해 3월 말부터 10여 명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행복한맘’ 공동작업장은 뜨개질로 수세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침침한 눈으로 하루 종일 만들 수 있는 수세미는 20여개 낱지. 수세미 하나를 팔아 남는 수익금은 250원이다.

다행히 주변 복지시설이나 아파트 주민들, 뜨개질 공급업체 등에서 생산품 전량을 구매해 올해 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약간의 수익금을 남겼다. 덕분에 어르신들은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공동작업장 총무인 김순남(71) 할머니는 “작은머느리가 아이 넷을 낳았는데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나는 머느리가 자랑스럽기만 하다”면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대석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번 사례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재광나주향우회 ‘나주인 한마음의 밤’ 개최



재광나주향우회(회장 김보근·DK산업 대표이사)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나주인 한마음의 밤’을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이 에스웨딩컨벤션 2층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능한 광주광역시장과 신정훈 청와대 농림비서관,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조재운 나주시 부시장,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당 최고위원, 김옥기 전남도위원을 비롯한 내빈과 재광 향우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재광나주향우회는 김남윤(순천향대)씨 등 3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김영란(나주고)양 등 고교생 9명에게 50만원씩 12명에게 모두 7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사

◆광주은행

◇1급 승진 ▲고병일 종합기획부 ▲김인수 업무개선부 ▲안장호 두암타운 ▲이정학 농성동 ▲최영수 평동공단금융센터

◇2급 승진

▲강철순 전남영업부 ▲권택은 전남도청 ▲김대영 ICT운영부 ▲김동수 계림 ▲김성재 감사부 ▲문진식 매월동 ▲박성우 여신심사2부 ▲박찬희 양재 ▲양성현 투자금융부 ▲오경재 문흥 ▲윤용철 디지털사업부 ▲이명인 영주 ▲이종하 영산포 ▲이준호 ICT운영부 ▲정현석 서동 ▲조영욱 대치동 ▲조현기 양산동 ▲주종열 화곡동 ▲최길준 삼성동 ▲허인교 영동포

◇3급 승진

▲김대중 인사지원부 ▲김동섭 ICT운영부

▲김두선 수도권금융센터 ▲김종진 여천금융센터 ▲김형렬 광양 ▲김환진 첨단금융센터 ▲노병길 봉선동 ▲문찬국 감사부 ▲박건용 논현 ▲박태경 상무중앙 ▲배수정 금호동 ▲배이철 ICT운영부 ▲선무영 WM사업부 ▲심상수 ICT기획부 ▲유광호 주월 ▲이신미 인사지원부 ▲이성삼 신세계 ▲이정범 화산 ▲장재영 자금시장부 ▲정성현 산수동 ▲정영화 법원 ▲최광철 월곡동 ▲허철수 삼성동

◇4급 승진

▲김경환 신가신창 ▲김성범 전대병원 ▲김원용 농성동 ▲김은정 상무 ▲김종규 상계동 ▲나원광 담양 ▲노광진 영업부 ▲마희수 영업추진부 ▲문종찬 하남로 ▲박철현 리스크관리부 ▲서민호 ICT기획부 ▲양성훈 운암동 ▲오은이 상무버들 ▲이명은 자금시장부 ▲이은희 영업추진부 ▲정종우 인사지원부 ▲조현정 금남로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일자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다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을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양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입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

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였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푸른길동통문화미회를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교육(수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부음

▲임기식(세례명 아오스당, 전 신협중앙회장, 광주가톨릭대 교수)씨 별세 임원섭·모니카(군포산본중 교사)·데레사(한국성장교용투자운용 변호사)·애나·의진(장강술루선 대표) 부친상 윤영현(남양부직포주 연구소장)·박성규(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김용찬(오케이치과 병원장)·이재중(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방부상=발인 19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정원조씨 별세 정병수·희숙·영자·영희·영순씨 부친상 조숙자씨 시부상 박동훈·김철성·김정호·김민철씨 방부상=발인 1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201호 故박전주 님(여/85세)		301호 故이재순 님(여/81세)	
子 : 주상하	子/子婦 : 이재열/허영미, 이재순/정선화	子/子婦 : 이재열/허영미, 이재순/정선화	子/子婦 : 이재열/허영미, 이재순/정선화
女/婿 : 안광호, 주영미/김진호, 주영선/최재환, 주진희/조진기	女/婿 : 이복덕/오성희, 이석순/최기철, 이순옥/홍성상	女/婿 : 이복덕/오성희, 이석순/최기철, 이순옥/홍성상	女/婿 : 이복덕/오성희, 이석순/최기철, 이순옥/홍성상
• 발 인 : 12월 19일	• 연락처 : 227-4381	• 발 인 : 12월 18일	• 연락처 : 227-4382
• 장 지 : 화순읍 주도로 선영	• 장 지 : 화순 이향 선영	• 장 지 : 화순 이향 선영	• 장 지 : 화순 이향 선영
101호 故박효상 님(남/38세)			
女/母 : 박인영/최영래, 兄/弟 : 박인현, 박주연			
• 발 인 : 12월 18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000			
함께 한10년. 함께 할100년 금 호 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 제 길 www.mysunmo.com			